
第75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生活環境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5年2月23日(木) 午前10時

場所 生活環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1995年度清掃事業本部所管主要業務計劃報告의件
 2. 燒却場豫算을쓰레기綜合處理技術開發費로轉換要求請願
-

審査된案件

1. 1995年度清掃事業本部所管主要業務計劃報告의件 ... 2面
 2. 燒却場豫算을쓰레기綜合處理技術開發費로轉換要求請願(李汪烈 議員 紹介) ...43面
-

(10時 22分 開議)

○委員長 李敏國;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5回 臨時會 第2次 生活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清掃事業本部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많은 關心을 가지고 議政活動과 市政發展을 위해 계속 헌신적으로 努力하고 계시는 委員님과 清掃事業本部長 이하 關係官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第75回 臨時會는 乙亥年 새해 들어 첫번째로 맞이하는 常任委員會로서 多事多難했던 지난 한 해를 거울삼아 올해

主要事業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契機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委員님들과 執行部 關係官 여러분께서는 課業遂行에 열심히 努力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清掃行政 分野에 우리 委員會 役割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今年 1月 1日부터 全面 實施된 쓰레기手數料 從量制의 早期定着, 資源再活用과 쓰레기 埋立, 資源回收施設 建設의 차질없는 推進 등의 事業을 적극 推進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지금 汎國民的運動으로 擴散되고 있는 政治, 社會, 經濟, 行政 等 分野에서 世界化推進運動에 우리 委員님들은 물론 執行部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서 여러 委員님들께서는 평소 높으신 識見과 議政活動을 통하여 얻으신 經驗을 바탕으로 얼마 남지 않은 任期 동안 더욱 더 內實 있는 常任委員會 活動으로서 有終의 美를 거둘 수 있도록 熱意와 誠意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執行部 關係官 여러분께서도 차질 없는 計劃推進으로 市民生活이 보다 향상되고 불편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業務를 遂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日程은 1995年度 清掃事業本部 主要業務計劃報告와 燒却場豫算을 쓰레기 綜合處理技術開發費로서 轉換要求 請願을 處理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清掃事業本部長께서는 業務報告를 主要事業計劃을 위주로 하여 報告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關係公務員께서도 우리 委員들께서 質疑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答辯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5年度清掃事業本部所管主要業務計劃報告의件

(10時 26分)

○委員長 李敏國;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5年度 清掃事業本部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清掃事業本部長께서는 主要業務計劃을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존경하는 李敏國 委員長님, 그리고 生活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희망찬 乙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밝은 모습의 委員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指導와 協助로 清掃行政의 水準을 높이는 데 최선의 努力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市民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部分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있는 쓰레기 從量制는 市民生活의 革命이라고도 볼 수 있는 劃期的인 制度의 變化임에도 불구하고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指導鞭撻과 全 市民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施行 50餘日이 지난 現在 거의 定着段階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改善하고 補完해야 할 問題들이 남아 있으며, 쓰레기 從量制가 완전히 定着되게 하기 위하여 再活用품을 원활히 收去 處理할 수 있는 對策을 補完 推進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問題에 대하여는 業務報告時에 보다 상세히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清掃事業本部에서 推進해야 할 사항들은 資源回收施設 建設促進을 위한 地域民願의 解消라든가 쓰레기

無斷投棄 根絶, 街路清掃 水準의 向上, 公衆化粧室 改善 等 여러 가지 解決해야 할 課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問題들을 능률적으로 推進할 수 있도록 委員님들의 더 많은 支援과 協助를 당부드리며, 우리 清掃事業本部 職員 모두는 世界化에 부응하는 수도서울을 가꾸어 나가는 데 혼신의 努力을 傾注할 것을 다짐하면서 95年度 主要業務計劃을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油印物を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報告)

청소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敏國; 清掃事業本部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潤枸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潤枸 委員; 全潤枸 委員입니다.

業務報告에서 뒷골목 清掃對策을 말씀해 주셨는데 從量制 實施 後 후유증으로 뒷골목 인심이 사라졌습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자기 동네를 清掃도 하고 그랬는데 從量制實施 이후 봉투값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동네에 가 보면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도 公共用 봉투를 준비했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부해 가지고 뒷골목 清掃에 住民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이 對策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蘭芝島의 組立

式住宅에 대한 問題입니다.

이것이 昨年에 移住 完了시킨다 하는 얘기를 清掃事業本部長께서 수차 했는데 아직까지도 未決狀態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移住民들에 대한 對策과 앞으로 향후 방향을 정확하게 設定해서 해야지 이것을 몇 年씩이나 두고 계속 이 問題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問題니까 清掃事業本部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언제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處理를 하겠다 하는 것을 講究해 주시고, 세번째는 蘭芝島의 事業所 關係입니다. 昨年度에 저와 鞠應好 委員이 수차 이야기를 해서 組織改編을 해서 書記官級을 事務官級으로 내리고 지금 39名の 事業所 職員이 있다고 하는데 이 39名の 事業所 職員과 裝備가 그렇게 필요한지, 이미 終了된 蘭芝島에다가 裝備도 가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職員도 39名씩이나 있다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時間이 없기 때문에 書面으로 일주일 이내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敏國; 全潤枸 委員님의 質疑內容은 일괄 書面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權赫柱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柱 委員; 權赫柱 委員입니다.

쓰레기手數料 從量制가 全面 實施된 지 2個月이 되었는데도 市民들에 대한 弘報不足과 施設未洽 등으로 아직까지 實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쓰레기 從量制가 성공적이라는 事例도 있으나

쓰레기手數料 從量制를 早期에 성공적으로 定着시킬 수 있는 前提는 分離收去와 再活用品의 回收體系의 확립이라고 생각 합니다.

共同住宅街나 單獨住宅 주변 골목에는 아직도 生活用品의 종류, 收去時期 등에 대한 弘報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항상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環境을 해치고 있는 것을 도처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從量制 示範實施 期間 中에도 單獨住宅 및 共同住宅街의 分離收去體系와 再活用品의 效率的인 收去體系에 대하여 여러 번 對策을 촉구한 바 있으며, 從量制가 全面實施된 현재까지도 民間團體 및 市民들이 제일 큰 問題點으로 指摘 하면서 하루빨리 定着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데 清掃事業 本部長께서는 쓰레기 分離收去體系 확립과 再活用品의 신속한 收去處理에 대한 對策을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今年 1月 1日부터 쓰레기 從量制가 全面 實施되면서 再活用品의 종류와 收去方法上의 問題로 여러 가지 問題點이 提起되었습니다.

방금 全潤杓 委員도 質疑하셨습니다만, 單獨住宅 골목길에는 목재조각, 포장용지 등이 흩어져 從前보다 더 지저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家庭에서 목재조각, 포장용 보르박스 및 종이류 등을 再活用品으로 보고 집대문 앞에 내어놓으면 이런 것들은 環境美化員들이 再活用品으로 보지 않아 收去를 하지 않고 골목길에 계속 텅굴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골목환경을 위해서 清掃事業本部長께서는 어떤 對策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먼저 쓰레기 종량제의 弘報 不足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弘報 不足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昨年 年中 油印物을 新聞 같은 데에 넣어서 各 家庭에 配付해 주었는데 이것은 사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때는 제가 분명히 弘報 不足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措置를 했느냐 하면 從量制 施行 要領을 이런 크기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것을 洞事務所 職員들이 各 家庭을 일일이 訪問해서 附着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事項을 제가 잠깐 報告를 드린 것처럼 分離 再活用品에 대한 案内 要領과 함께 이 事項들이 各 家庭에 附着이 되어 있는지를 電話設問을 통해서 逐 調査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市內 1,000家口에 대해서 電話로 물어봤더니 한 85%정도가 附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에 대해서는 區廳長들에게 직접 區廳別로 電話를 해서 地域別로 확인을 해 보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附着해 주는 方法을 강구해서 附着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各 家庭에 附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弘報가 不足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만 15%정도가 附着이 안 되어 있는 家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완전히 다 附着을 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權赫柱 委員; 이 스티커는 저희들도 처음 봅니다.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그렇습니까?

○權赫柱 委員; 네, 전혀 모릅니다.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그런데 저도 이것이 왔나 안 왔나 하고 가 봤더니 집사람이 받아놓고서 이것을 附着을 안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붙이는 것이다 하고 뒤를 떼서 주방에다 붙여줬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補完을 해서, 이것 이상의 弘報方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완전히 붙여주면 弘報는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저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大型生活쓰레기 사실은 이것이 問題입니다. 이 부분이 現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日 前に 洞事務所에 申告하면 洞事務所에서 나와서 告知書를 發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大型生活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 區廳에서 車輛을 가져와서 실어서 資源再生公社의 事業所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弘報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것도 各 家庭에 附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大型生活쓰레기의 處理費用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농같은 것은 1萬 5,000원, 대형냉장고는 8,000원 이런 식으로 대략 만들어서 하면 아, 이것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住民들이 認識을 하고 내놓는 要領을 거기에다 記錄을 해서 住民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再活用品 收去對策, 사실상 이것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이 判斷해서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每週 2個 曜日을 再活用品만 내놓는 날로 運營하도록 區廳에 指針을 示達해서 그 날은 모든 清掃人力과 裝備를 일반생활쓰레기는 치우지 말고 再活用品만 收去 處理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날 내놓는 家庭들이 생겨서 이것이 치워지지 않고 며칠씩 적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從量制 實施와 관련해서 남는 清掃

人力과 裝備가 얼마나 되느냐, 金浦로 들어가는 埋立用 쓰레기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環境美化員 숫자가 約 1,900餘 名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車輛도 500餘 臺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活用해서 洞別로 1個 專擔班을 만들어서 再活用品을 收去하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몇 個 區廳, 지금 江南이라든가, 瑞草, 蘆原과 같이 代行業體의 收去比率이 높은 區廳은 區廳에 남는 資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區廳에 대해서는 추가로 再活用品을 충분히 신속하게 收去할 수 있도록 環境美化員 採用을 新規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호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全 區가 洞別로 1個 再活用 收去專擔班을 編成해서 運營해 나가도록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골목길의 清掃問題는 아까 公共用 봉투를 480萬 장을 만들어서 지금 配付해서 運營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活用된 實績을 우리가 죽 各 區廳으로부터 報告를 받아보니까 86萬 枚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6萬 枚 정도 量을 보니까 하루에 500톤 정도의 골목쓰레기가 收集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500톤이면 大型車輛 50臺分이 되는데요.

그러나 洞長들이 公共用 봉투를 선불리 地域의 早起會라든가, 또 生活團體, 또 地域의 奉仕的인 입장에서 奉仕活動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면 이 公共用 봉투에다 자기 집에서 排出되는 생활쓰레기를 담아서 버리지 않겠느냐 하고 洞長들이 의구심을 가져서 그 분들은 원래 奉仕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供給해서 昨年未까지의 골목길 清掃가 원활히 되던 상태로 還元시키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라고 指針을 내려보냈

습니다.

다만, 지금 權赫柱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家庭에서 목재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再活用品이 아닌데 再活用品인 줄 알고 내놓으면 環境美化員은 清掃를 해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길거리를 너저분하게 만드는 要因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형생활폐기물, 또 再活用品의 內譯에 대한 弘報를 더 強化하고, 住民들이 몰라서 내놓는 경우에는 住民들을 계도하면서 바로 바로 치우도록 이렇게 指導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던 慣習을 일시에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問題 解決을 위한 주부모임을 活性化해서 地域에서 나오는 問題를 바로 바로 우리가 補完해 나가도록 이렇게 推進을 하겠습니다.

○權赫柱 委員;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期間에 이만큼 定着된 것도 成功的이라고 아까 質疑 때 말씀드렸습시다만 실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스티커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실제 아직도 그런 면에서 弘報가 안 되고 있으니깐 좀더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골목길에서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인데 古物商의 일반인들이 보르박스같은 것은 걷어잡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안 가져가니까 環境美化員들도 실제 從量制 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가져가니까 그런 면이 弘報가 不足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全潤枸 委員도 말씀하셨습시다만 골목길이 굉장히 인색해졌어요, 요즘엔.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洞에 가게 되면 줍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

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골목길 清掃하는 분들은 다 奉仕하는 분들이거든요. 어느 마을이면 마을, 어느 골목이면 골목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그래도 識見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전부 清掃를 하시고 남의 대문 앞까지 다 쓸어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것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서 참 아쉬움을 가지는데 좀 弘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지금 말씀하신 內容 銘心해서 補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權赫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敏國; 本部長님,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再活用品을 내놓는데 보니까 대부분 한 봉투에다 다 같이 담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收去班員들이 와서 보면 다시 그것을 길에다 쏟아서 거기에서 또 分離하느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住民들은 그저 再活用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전부 한 데다 넣어버리죠. 그리고 나면 收去하는 분들이 와서 길이나 넓은 데 같으면 좋은데 6m消防道路 같은 데, 4m道路 같은 데 차를 갖다 그냥 세워놓고 길에다 그 자루를 쏟아놓고 그것을 거기에서 分離해 가지고 가느라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交通이 마비가 되고 住民들은 아우성을 치고 이런 弊端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깊이 느낀 것은 各 區廳마다 車輛이 있는데 암롤차가 대부분의 主種을 이루고 평차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再活用品을 싣는 데는 암롤차가 아주 불편합니다. 뚜껑있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各 區廳에 대충 제가 어제도 알아봤는데 보통 6·70臺가 있지요, 암롤차가. 그런데 평차는 한두 臺, 서너 臺밖에 없다고 하는 실정인데 이 계재

에 지난 번 本會議 席上에서 市長님께서 말씀하신 동아건설에서 450億원이라고 하는 돈을 市民不便 解消에 썼으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豫算을 어떻게 하더라도 해서 各 區廳에 평차를 증차시켜 주어서, 그러면 차가 증차되면 또 技士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杞憂같은 생각들도 하시던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隔日制로 技士가 運營을 하면 되니까. 再活用品을 실는 데는 아주 암롤차가 그렇게 不便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평차 말이죠, 거기에다 再活用品을 꼭 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各 洞마다의 아주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꼭 좀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再活用品을 지금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建築할 때, 竣工檢査를 해 줄 때 再活用品 分離收去函이 꼭 設置가 되어야만 竣工檢査를 해 주도록 各 區廳에 아파트 竣工檢査 指針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共同住宅의 경우에는 페트병 넣는데, 또는 캔 넣는데, 또는 종이 넣는 데 이것이 分離函이 되어 가지고 5種으로 分離가 돼서 거기에다 넣도록 되어 있는데 單獨住宅의 경우에는 그러한 5種으로 分離하는 分離收去函을 設置할 場所가 없습니다. 그래서 單獨住宅의 경우에는 2種 내지 3種으로 分離해서 혼합해서 넣도록 했습니다.

제가 아까 報告드린 再活用品 收集 專用容器를 區廳에서 製作해서 無料로 配付해 주도록 한 것도 單獨住宅地域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配付가 完了되면 거기에 넣도록 했는데 이 용량을 區廳에서는 點檢을 해서 봉투가 한 장 필요한 데는 한 장을 주고 再活用 收去容器를 말이죠, 한 개가 필요

한 데는 한 개를 주고, 두 개 필요한 家庭에는 두 개 주고, 세 개가 필요한 家庭에는 세 개를 주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指針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混合하는 것은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결국 單獨住宅地域은 2種 내지 3種으로 分離해서 넣기 때문에 종이하고 플라스틱이 같이 섞여 들어갑니다.

또 다른 캔도 같이 섞여 들어가고, 이것을 洞別 集荷場에 와서 거기에 부어놓고 選別하도록 했는데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서 놓고 하는 現場들이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체 못 하도록 指導해 나가고, 꼭 選別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이것은 洞別로 確保된 集荷場에서 하도록 하고, 장차 이것이 어느 정도 定着이 된 다음에는 단독주택 地域도 5種으로 분리해서 다시 쏟아놓고 분리하는 노력을 하지 않도록 改善案을 講究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從量制 施行과 關聯해서 남는 環境美化員이 1,998名, 車輛이 548臺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環境美化員은 바로 再活用 專擔要員으로 投入할 수가 있습니다. 車輛 548臺는 사실 뭐냐하면 金浦로 왔다 갔다 하는 大型 輸送車가 主입니다. 이 車輛을 가지고 再活用品 收去專用 車輛으로 運營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區廳에 이 車輛은 전부 賣却을 하고, 再活用品 收集에 적합한 小型車輛, 이것을 購入을 해서 運營하도록 지금 이렇게 指針을 내려줘서, 이것이 賣却된 다음에 代替되는 車輛은 전부 再活用品 運搬 收集에 편리한 小型車輛으로 전부 바뀌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 동안은 어떻게 活用하려고 하느냐 하면 洞別로 行政車輛이 1臺씩 있습니다, 小型트럭들이. 이것을 좀 積極的으로 活用하도록

指針을 내려보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동아 건설에서 市에 寄附하기로 했던 450億원, 이 事項은 저희들이 이런 國內에서 購入할 수 있는 坪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從量制와 關聯해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街路가 우리가 世界化, 世界化하지만 우리 나라의 一般的인 都市의 清掃狀態는 깨끗하지만 街路의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보도블록도 잘못 깔려 있는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人力만 가지고 車輛이 다니는 道路·步道 여기를 清掃한다는 것은 前近代的인 方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이것을 機械化하려고 目標를 해서 約 100臺 정도의 街路清掃車, 브러시 달리고, 흡입하고, 물 뿌리고 하는 街路清掃車 이것을 購入해 주십사하고 현재 要請을 하고 있습니다, 몇 臺가 反映될 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車輛으로 購入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敏國; 그것도 車道에는 가능하지만 人道에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그것이 人道를 할 수 있는 그런 車가 있습니다. 브러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죽 포클레인처럼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車輛을 確保해서 步道까지, 아까 業務報告書에 앞으로 街路清掃는 車道爲主에서 步道까지 擴大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다음 李迎春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迎春 委員; 안녕하십니까, 李迎春 委員입니다.

우리 清掃事業本部에서 연일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우기 生活쓰레기 再活用이라는 이러한 認識을 우리 서울市民이 느끼기 시작한 것은 몇 年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市가 再活用 %를 볼 때 벌써 20%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수십년간 再活용을 해 온 先進國들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認識을 잘 하면서 住民들의 협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1月 1日부터 1月 30日까지 冠岳, 서초, 江南, 銅雀, 永登浦 等 6個 區廳 에 쓰레기 再活用 규격봉투 販賣業所랄까, 직접 販賣하고 있는 場所 300餘 군데를 들리면서 제가 調査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조사 가운데 상당부분은 여기에 지금 報告書에서 改善된 部分이 나타났습니다만 그곳에서 販賣하는 분들과 住民들과의 대화 속에서 불만, 불평, 또 要求事項들을 集約해 보면 물론 여기 報告書에 改善點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調査한 內容을 우선 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위 규격봉투가 너무 투명해서 불결한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차마 바깥에 내놓기가 썩스럽다. 이런 指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꽃무늬를 넣는다는지, 색깔을 넣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指摘이 있었고,

또 묶는 부분이 특히 10 L, 20 L짜리는 묶는 부분이 없어서 제대로 쓰레기를 많이 넣지도 못 하고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묶는 부분도 이번에 다시 再生産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다소 價格이 몇 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묶는 部分이 전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指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販賣所에 10 L, 20 L, 50 L, 75 L, 100이렇게 다 섞어서 보내 주는데 家庭에서는 家庭用이 가장 必要한 20 L짜

리가 보다 많이 配給이 돼야 하는데 20L짜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住宅街 주부님들의 한결같은 얘기였다. 그래서 가능한 50L는 크니까 20L를 많이 보내주면 좋겠다. 10L짜리 있습니까?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네.

○李迎春 委員; 네, 10L짜리가 많다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販賣業所 이 분들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조금 장사를 하는 것 같다. 뭐냐 했더니 규격봉투를 가지고 갈 때 전부 돈을 入金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販賣는 되지 않는 狀態에서 또 다음 규격봉투를 받으러 갔을 때 다음 販賣分에 대해서 전부 돈을 入金을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販賣分에 대한 代金만 入金시켰으면 좋겠는데 미리 돈을 다 받아간다. 그래서 零細 규격봉투 販賣業所에서는 단돈 몇 십만원이라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是正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代金を 入金시키는데 洞事務所에서 어느 特定 銀行만 入金을 시키라는데, 어느 場所에서는 2km, 3km를 가서 入金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왜 가까운 銀行에 入金을 시키면 안되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冠岳區 같은 경우에는 冠岳區廳內에 商業銀行 出張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入金을 시켜라, 그래서 그 먼 데 까지 가는데 애로가 많다. 쌀장사하는 분은 남편이 쌀 장사하고, 부인은 어디 일터에 나갔는데 언제 이것을 入金시키러 가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利益問題, 제가 調査해 보니까 約 4%에서 4.3%의 利益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격봉투 販賣하는데. 그런데 적어도 6%에서 7%의 利益은 남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要求事項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要求事項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販賣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당신이 한 번 가지고 가서 많이 팔수록 4%가 12%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事項을 議會에서 얘기 좀 해 주시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運搬問題도 있습니다. 洞事務所에 가니까 清掃擔當 職員은 한 사람인데 販賣所는 수십군데라서 갖다 달라니까 못 갖다 주겠다. 이것 우리가 몇 푼 남는다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러 가느냐, 그래서 이런 시비가 있었던 事項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묶음 속에 10장인가, 20장인가 있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0군데 묶음 속에서 한두枚가 부족하다. 不足分에 대해서는 補充해 달라니까 안해준다. 이런 問題가 있더라. 그래서 공장에서 가져올 때 약간 問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30군데 가운데 한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洞事務所 職員들 얘기는 洞長한테 얘기를 해서 擔當 職員이 애를 쓰고 있는데, 쓰레기 從量制를 實施한 이후에 清掃擔當 職員에게 業務를 좀 덜어주는, 다른 業務를 좀 덜게 해 주는 그런 것도 洞長에게 얘기를 해 주시오. 제가 다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군데 洞事務所 職員을 만나 보니까 清掃擔當 職員이 과중한 業務를 하고 있다. 어느 販賣業所에서 때를 쓰면서 나 못 가져가겠다 하니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자리도 비우고 하던데 業務負擔을 덜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상이 쓰레기 從量制 규격봉투 販賣에 대한 住民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까 재질이 나쁘다. 그 문제는 통상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했습니다만 재질문제도 있었습니
다만 앞으로 재질 많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從量制 實施에 따른 문제고, 아까 우리 本部長께서 從量制 實施로 인해서 車輛이 580餘 臺, 그리고 環境美化員이 1,800餘 名의 소위 여과분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면서 오는 여분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再活用品을 수요일, 토요일 收去日字 정해 놓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종이들이 전부 그냥 파손이 되고, 再活用할 수 없는 立場이 됐다. 그러니 때로는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그 날짜에 상관하지 말고 바로 바로 再活用品은 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물론 이것이 어찌다가 그렇게 된 일이겠습니까만 제가 1월에 趙世衡 國會議員님, 韓國政學研究所 理事陣 50분과 더불어 관악산 연주암을 갔습니다. 갔다 오다가 거기에 國會議員 여섯 분이 있었습니다만 입구쪽에 공중변소 있지요. 입구쪽은 아주 깨끗이 잘 해 놨어요. 산 중 간쯤 올라가다가 이분들이 마침 화장실을 들어가 보며 李迎春議員 이것 좀 보세요 해서 가 보니까 공중변소가 淸掃가 되어 있지 않던데, 어찌다 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길숙한 公園에도 안쪽의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 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敏國; 答辯을 나누어서 하시지요.

○淸掃事業本部長 金東勳; 李迎春 委員님께서 참 좋은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다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도 이런 것이 問題點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빨리 能率的으로 고쳐나가는 것을 계속 推進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 나가겠고요.

다만, 몇 가지 제가 알지 못 했던 部分이 있는데 묶음 속에 不足分이 있을 때 이것을 환불 안해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동사무소에서 잘못 준 것이니까 是認을 하고, 販賣業所에서 한 장 利益보려고 한 장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할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불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울시가 장사하는 것 같다. 販賣業者가 販賣分만 納付하면 됐지, 販賣가 안 된 部分까지 돈을 納付하라고 그러는 것은 矛盾이 있지 않느냐, 그런 指摘을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규격봉투를 줄 때에는 그냥 주었습니다, 1회차 나갈 때에는. 1회차 나갈 때에는 그냥 줬어요. 그리고 販賣한 다음에 納付하도록, 그래서 1회에 예를 들어서 1,000장을 가지고 갔으면 다음에 500장을 가지러 올 때에 1,000장분을 納付하도록 했습니다, 자꾸만 누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먼저 1회치는 외상으로 가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販賣手數料가 현재 4%라고 하셨는데 6% 이상 確保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中區와 道峰의 경우에는 8%, 西大門은 9%거든요, 販賣手數料가. 瑞草, 江南, 鍾路가 7%고, 永登浦가 6.5%고, 기타 區廳이 전부 6%로 되어 있습니다. 販賣하시는 분이 요율을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6%미만은 없습니다.

○李迎春 委員; 그렇습니까?

○淸掃事業本部長 金東勳; 네.

○李迎春 委員; 내가 區廳에 물어보니까 4.3%라고 하던데, 冠岳區 같은 데는.

○清掃局長 金承珪; 6%에서 9%사이에서 與件에 맞게 定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迎春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冠岳, 銅雀 같은 경우에는 규격봉투가 제일 싸지요?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네, 冠岳이 제일 싸니다.

○李迎春 委員; 그래서 이렇게 料率도 낮습니까?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李迎春 委員님이 말씀하신 事項은 저희들이 問題로 인식하고 있는 事項이기 때문에 積極적으로 改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다음 金亨根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亨根 委員; 金亨根 委員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質問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排出實態와 그 推定値를 꼭 報告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94年度에 하루 平均 1萬 5,397톤, 再活用이 20.5%, 埋立 78.6%, 95年 目標는 1萬 4,700톤, 再活用이 5,100톤 이렇게 目標를 設定해 놓았는데 우선 95年度 1月 들어서 從量制 실시 이후에 排出이 減少되고 再活用이 增加되었다는 것을 新聞報道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이 報告書에는 그런 報告가 안 나와 있어요. 적어도 報告書에서 그런 것을 記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指摘을 하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아는 統計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月 들어서 排出이 약간 늘어나고 再活用이 減少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統計도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聯關해 가지고 再活用品을 收集하는데 있어서 우선

各 區廳別로 清掃用役業體나 區廳의 直營으로 再活用品이 收集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量이 民間收集商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收集되고 再活用된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量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특히 今年 1年 들어서 어떤 變化가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各 區別로 統計가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다. 各 區別로 直營業體는 얼마를 收集하고 있고, 清掃用役業體는 얼마를 收集하고 있고, 그 다음에 民間收集商은 區別로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서울市 전체로 얼마를 收集하고 있는지 그 統計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收集된, 특히 清掃用役業體와 直營으로 收集된 再活用品이 再活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는데 크게 보면 두 군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民間收集商한테 팔려 나가고 資源再生公社로 나가고 그런데 과연 몇 %나 어떠한 量이 民間收集商으로 가고 資源再生公社로 가고 있는지, 전혀 統計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統計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으면 나중에 圖表로 作成해 가지고 자세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問題는 지금 統計로 봤을 때 95年度 目標가 再活이 5,100톤이다, 34.7 %다,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妥當性이 있는지, 그리고 每月 1月과 2月이 또 달라지는데 과연 앞으로 가면서 그러한 目標値를 達成할 수 있을는지 그것을 推定을 하려면 일단 精確한 統計値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르는 問題點이 무엇인지 把握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까 本部長께서 報告말씀 하시는 중에 再活用 分離方法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는 5種으로 이미 다 잘

되고 있고, 住宅은 2·3種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住宅이 2·3種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本部長께서는 2·3種을 어떤 식으로 分類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지, 어떻게 보면 本部長께서도 잘 모르시고 卓上行政 하시는 것 같아요, 2種인지, 3種인지 명확히 아셔야지요. 그냥 2·3種 해 놓고 나중에 5種으로 되겠다, 언제 5種으로 될 것인지 그런 것이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住宅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一般住宅에다가 再活用을 위한 容器를 제대로 보급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報告를 제가 地域에서도 받지 못 했고요, 단지 地域에서 再活用을 하는 데 여러 가지 隘路點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가 그냥 사람마다 틀리고 地域마다 틀려요. 어떤 地域에 가면 아무 봉투에나, 검은 봉투에다 해도 된다, 청색 봉투에 해도 된다 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再活用品을 집어넣게 하고 있어요.

어떤 分離라는 概念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措置를 지금이라도 本部長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指摘할 것은 環境美化員의 躓 問題입니다. 그 동안 물론 環境美化員이 열악한 環境 속에서 일하고 또 낮은 보수 때문에 우리 社會에서 低所得層으로 認識이 되어 왔고 거기에 따라서 環境美化員의 躓을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그런 것으로 여태까지 置簿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問題는 그 環境美化員에게 躓을 주는 것이 環境美化員에게 직접적으로 福祉惠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얽혀서 예를 들어 일종의 上納이 들어가고 上納에 따라서 좋은 자리가 택해지고 이러한 非理로써 運營되어 왔

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從量制 實施 以後에는 住民들의 意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清掃費라는 명목으로 環境美化員의 팁을 쥐 왔었는데 從量制가 實施되고 나니까 봉투값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나니까 住民들 사이에서 팁을 쥐야 될 必要가 있느냐 하는 疑問이 상당히 提起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本部에서는 원래 팁은 쥐서는 안 된다는 原則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地域에 나가 보면 그것은 전혀 實現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慣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本部에서 아무리 이려고 저려고 얘기를 해도 일선 公務員들은 그것이 慣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라고 命을 내렸을 때는 결국은 指摘 받은 한 두 곳의 사람들에게만 被害가 될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교정되지 않고 指摘 받은 地域 사람들만 被害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地域이 그렇더라 그러면 그 地域 사람들을 꼬집어 내가지고 예를 들어 待機發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左遷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나니까 당하는 사람 立場에서는 전체적으로 안 그런데 나만 당하는구나 하는 誤解를 사게 되고, 또 그런 말을 한 住民 그런 民願을 提起했던 住民도 봤을 때 근본적인 問題가 解決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根本적인 對策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報告말씀 중에서 再活用品 販賣代금이 環境美化員의 복지에 이용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制度化 해 가지고 정말로 環境美化員들의 복지를 완벽하게 하면서 住民들의 被害는 없이, 그런 制度를 지금은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從量制를 實施하면서 바로, 지금이라도 바로 實施하고 推進해야 될 그런 問題가 아닌가 생각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것을 體系化 하고 制度化 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敏國; 좀 나누어서 答辯해 주세요. 혼자 계속.....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95年 1月, 2月 쓰레기 排出 統計, 再活用品의 直營分, 民間收集商分. 代行業體分 統計, 民間收集商으로 나가는 量과 資源再生公社로 나가는 量은 書面으로 提出하도록 하겠습니다.

再活用品의 分離方法에서 아주 金委員님께서 좋은 指摘을 해주셨는데, 아파트는 잘 되는데 住宅地域은 사실 區廳에서 이러한 스티커를 다 붙여 주면서, 이것은 中區廳의 경우입니다. 가정에 附着을 해 주면서 여기에다가 再活用品을 내놓는 것은 종이류하고 기타류, 이렇게 2종으로 내놓아 주십시오 하고 나갔는데 실제로 住民들께서는 이것을 한 種으로 다 섞어서 내놓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이 部分을 더 집중적으로 弘報를 하고 定着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아까 區廳에서 無料로 再活用品 收集專用 容器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려라 그런 것 입니다.

그 容器에다 내 놓으면 環境美化員이 집어넣고, 그 容器는 거기 놓고 오도록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 容器가 다 배부가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 部分을 弘報하려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제가 아까 5種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한 것은 앞으로 그러한 方法으로 나가겠다 하는 方向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種으로 分類하지 않고 다 섞어서 내놓는 집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容器를 아직 배부하지 못한 狀態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啓導에 限界가 있는데 容器를 나누어드린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啓導하면 市民들이 단시간 내에 協助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環境美化員들 躉 問題는, 참 좋은 指摘의 말씀 해 주셨고, 현실 있는 그대로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部分에 대해서 지금 躉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指針을 내리고 區廳長으로 하여금 그렇게 敎育을 시키도록 하고, 躉를 받는 環境美化員에 대해서는 處罰을 가하도록 이렇게 내려 줘니다만, 오랜동안 慣行으로 내려온 事項이 근본적으로 하루아침에 改善되기는 어렵겠다 생각해서 아까 당초에는 再活用品 販賣代金の 30%를 環境美化員의 복지비로 使用하도록 區廳에 指針 내려가 있던 것을 제가 50%로 上向調整 했습니다.

50%로 上向調整 하니깐 평균 한 달에 7萬 5,000원 정도씩 再活用品 收集한 環境美化員들한테 支給이 될 수 있는 財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0%로 上向調整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러나 현재 環境美化員의 給與水準이 평균 137萬원입니다. 137萬원 가지고 우리 나라 현재 經濟 狀況으로 봐서 그러한 3D 業種에 속하는 그러한 일을 137萬원의 月給 가지고서 견장한

勤勞할 수 있는 能力 가진 사람들이 하겠느냐, 현재도 環境美化員의 平均 年齡을 보면 50代가 가장 두텁습니다. 젊은 사람들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問題는 앞으로 環境美化員의 處遇와 관련되는 事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時期에 가서 점점 環境美化員들이 老齡化되고, 募集이 안 되면 給與를 올려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勤勞者를 募集할 수 있는 體系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전국적인 事項이기 때문에 새로 民選 自治團體長이 들어서고, 또 民選 市長이 들어서면 현재보다는 더 과감하게 이 問題가 是正될 수 있는 여건이 造成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사실 金亨根 委員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委員長님 이하 委員님들이 다같이 苦悶하는 事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改善하는 方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金亨根 委員님 이해 되셨지요?

○金亨根 委員; 네.

○委員長 李敏國; 다음은 崔丁植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丁植 委員; 이번에 分離收去 問題, 行政當局과 市民精神에 입각해서 높은 成果와 協助를 얻었다는 데 대해서는 當局에 激勵을 드리면서 제가 먼저 쓰레기 分離收去 할 때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分離收去를 해서 再生되는 廢紙 問題를 몇 군데 洞事務所하고, 區廳하고를 제가 訪問을 해서 內容을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 再生할 수 있는 廢紙를 어느 洞은 自體에서 販

賣해서 自體의 어떤 職能團體에서 자율적으로, 물론 收去하는 環境美化員들한테도 어떤 惠澤을 주고 있겠지만, 獎學金도 주고 그런 制度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쓰는 洞이 있고, 또 區廳에서 直營하는 車輛과 個人業者의 車輛이 收去하는 것에 대한 불공정한 去來行爲, 이런 問題들이 상당히 本委員은 問題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一元化시켜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資源再生公社에서 물론 廢紙도 받고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一般 古物商으로 가는 量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一般 古物商에는 우선 計量器 設置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갖다 파니까 이것은 어느 주머니로 들어가도 統計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問題를 再活用品도 모든 것을 一元化해서 資源再生公社에 일단 販賣를 해서 代金을 一元化시켜서 各 區廳이면 區廳에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環境美化員에 대해서 50%를 福祉基金으로 사용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一元化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주 문란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서는 아파트대로 나오는 그것을 婦女會에서 자기들이 販賣해서 자기들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洞事務所도 洞事務所대로 각자가 다 틀려요. 一元化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一元化를 시켜서 區廳이면 區廳에 基金을 納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一般業者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팔아 먹는 것이 100%區廳에 納付된다고 볼 수 있느냐, 本委員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를 빨리 소급해서 條例를 改正한다든지 해서 이 問題를 定着시켜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世界化로 나가는데 漢江市民公園이나 이런 데는 서울시 所管이죠?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네.

○崔丁植 委員; 그런데 公衆便所입니까, 簡易化粧室입니까,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簡易化粧室입니다.

○崔丁植 委員; 移動式이죠?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네.

○崔丁植 委員; 그래서 이것을 品質을 좀 改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름에 化粧室 들어가 보면 아마 沐浴다니시는 분들 그 사우나탕보다도 더 엄청난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品質을 좀 改善해서 앞으로 簡易移動便所의 質을 앞으로 좀 높여서 市民들이 사용하는 데 不便하지 않도록, 그리고 요즘에 品質改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斷熱材를 넣는다든지 해서라도 이런 問題는 改善이 되어야 되겠다, 本委員이 볼 때는. 우리 市民들이 이용하는 데도 이렇게 不便한데 사실 외국사람들이 와서 그 化粧室 들어가려면 뜨거워서 들어가지 못 해요. 여름에는 열을 받아서. 그래서 아까 簡易移動化粧室 問題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가지 問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敏國;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諒解해 주신다면 清掃局長으로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네, 局長님 答辯해 주십시오.

○清掃局長 金承珪; 清掃局長입니다.

諒解해 주셨기 때문에 앞서서 崔丁植 委員님 質疑事項에 대

해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再生 廢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再活用品이라고 分類되어서 나오는 것이 여러 種類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市場性이 있는 品目과 그렇지 않으면 즉 말하자면 再生工場이 영세하거나 모든 것이 못 갖춰져서 잘 안 팔리는 品目들이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류 같은 것이 그 品種에 속하겠습시다만 그래서 지금 보면 民間收集商, 古物商들은 잘 市場性이 있는 것만 주로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自治區 收集員이 주로 해서 資源再生公社에 넘겨주고 돈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돈의 가치가 없는 것은 無償으로도 해서 마저 處理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자기 집에서 나오는 再活用品을 사실 규격봉투에 담지 않기 때문에 無料로 處理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무조건 住民들이 다 내놓으면 우리 環境美化員들이 다 갖고 와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나오는 것을 내 個人的으로 팔겠다, 古物商에 팔겠다 하는 것은 못 말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 地域의 住民들이 같이 婦女會라든가, 老人會에서 자기네들의 各 家庭에서 나오는 것을 일정한 場所에 收集을 해서 選別을 해서 古物商에 팔아서 그 收入金을 가지고 하나의 福祉基金으로 쓰겠다 하는 것은 그것도 사실 말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婦女會가 活性化된 데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그것을 잘 選別까지 해서 古物商에 팔고,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은 그냥 갖다 쌓아 놓기만 하지 그것도 안 나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自治區에서 回收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획일적

으로 環境美化員이 모두 다 收集하고 일체 民間人들이 各 家庭에서 직접 파는 것은 禁止하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古物商들이 가져가지 않는 그 部分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완벽하게 收去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古物商 民間收集商協會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너무 營利的으로만 생각해서 그것 모아놓은 것 중에서 진짜 알짜만 다 뽑아가서 나머지는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 한 처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收集商 會長團에다 좀 안 팔리는 것이더라도 일괄적으로 당신네들이 그 地域에 있는 것을 같이 사가라, 그리고 再生工場에 보내줄 것은 다 보내주고 나머지 再生工場에서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區集荷場으로 너의 民間收集商協會, 古物商에서 다시 넘겨달라, 그러면 우리가 루트에 의해서 資源再生公社에 넘기겠다 그렇게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金亨根 委員께서도 말씀 하셨습시다만, 自治區 環境美化員이 收集하는 부분이 한 1/4정도 됩니다. 1/4밖에 안 되고 나머지 3/4은 古物商들이 직접 收去해 가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統計는 매달 받고 있습니다. 月 單位로.

물론 여기에 資源再生公社처럼 計量器가 아주 철저한 計量器이냐 하는 것은 疑問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 다 計量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各 區에서 古物商別로 收集한 量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記錄을 하고 또 區廳에다 通報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量에 대해서는 큰 問題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問題는 좀 國家的인 차원에서 종전에는

資源再生公社가 전적으로 나서서 직접 收去를 해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資源再生公社의 人力과 車輛이 너무 所要가 많다. 그래서 國家가 할 수 있는 부분, 資源再生公社는 國家傘下團體이기 때문에 國家는 民間市場經濟原理에 의해서 안 움직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收去하고 또 그것을 備蓄하고 處理해 주는 것이 國家의 任務 아니겠느냐.

그래서 資源再生公社가 昨年부터 사실상 손을 뗐지 않습니까? 昨年 4月 1日부터 自治區 부분으로 民間收集分 自律分은 넘기고 안 되는 부분만 資源再生公社에 處理하는 그런 방향으로 커다란 기조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하에서 우리가 좀더 원활하게, 저희들이 일단 빨리 收去가 되고, 빨리 處理가 되는, 그리고 住民들이 또 가급적이면 販賣所得을 많이 올릴 수 있는 方法이 뭐냐, 그러한 방향으로 좀 支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漢江市民公園에 移動式化粧室이 좀 不便하다 하는 것은 지금 登山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시다만 그 公衆化粧室을 우리들이 지금 最善의 材質에 있는 移動式化粧室로 改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상태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진짜 永久式의 제대로 된 建物を 지어서 設置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國立公園같은 데는 일부 改良된, 또는 登山路 入口 같은 데는 그런 것이 設置되어 있습니다만 登山路 중간이라든가, 특히 漢江市民公園, 이것이 말씀 그대로 高水敷地이기 때문에 洪水期에는 거기에 물이 차서 그냥 쓸어져 내려오니까 아주 完全固定式의 改良된 化粧室로는 못 짓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移動式化粧室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市民公園에 갖다 놓은

것은 國內에 나와 있는 P製品으로 만들은 것인데 최고의 質로 그 이상의 水準이 없는데, 다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좀 냄새가 덜 나고 市民들이 不便이 없도록 해 나가는 방법은 조금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斷熱問題라든가 좀더 補完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改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丁植 委員;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婦女會나 各 洞에서 販賣하는 그 再活用品 말고 區廳의 直營 車輛이라든지 一般代行業所 車輛에 收去해서 과는 1/4의 推定額數가 연간 157億원이라는 말씀이죠?

○淸掃局長 金承珪;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崔丁植 委員; 그런데 아까 金亨根 委員도 말씀을 하셔서 書面으로라도 答辯을 要求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直營이라고 그래서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 代行業者들이 과연 이 再活用品을 팔아서 꼭꼭 갖다 入金을 시키겠느냐 하는 것도 問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淸掃局長 金承珪; 그것은 조금 理解를 해 주십시오. 지금 代行業體 그 사람들은 區에다 그 基金을 내지를 않습니다. 사실 代行業體는 이 再活用品을 收集을 해서 그것을 販賣한 金額이 그 再活用品 收去 處理하는 費用이 안 나옵니다. 그 人件費라든가 車輛運行費가. 그래서 代行業體들은 이것을 가급적 忌避를 하려고 합니다. 안 치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너희들이 淸掃區域을 擔當하고 있으니까 再活用品도 좀 處理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要求를 하는 것이고 再活用品을 자기네들이 收去를 해서 販賣를 했으면 그것은 區에 基金으로 안 들어오고 자기네 자체 會社에

서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忌避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環境美化員들이 거기까지 치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自治區 環境美化員이 收去한 부분은 전부다 全額 區管理基金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崔丁植 委員; 그것 理解가 안 가는데요. 왜 理解가 안 가느냐 하면 기존의 이 사람들이 이 再活用品을 販賣하지 않고도 代行業을 했잖아요?

○清掃局長 金承珪; 그렇습니다.

○崔丁植 委員; 그런데 이 販賣代金を 가지고 가는데 협조를 해 준다 그것 理解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再活用品을 販賣해서 거기에서 한 달 나오는 利益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投入되는 費用은 한 200萬원 되는데 한 달 들어오는 利益은 15萬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販賣代金 중에서 50%는 環境美化員에게 還元해 주라 해서 그것이 7萬 5,000원입니다. 나머지 7萬 5,000원은 住民들한테 還元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化粧紙를 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住民들한테 還元을 해 주어야만 住民들도 신이 나서 내놓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萬원을 얻기 위해서 137萬원짜리 環境美化員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再活用品을 收去하는 것은 전혀 채산이 안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전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一般生活쓰레기 속에 再活用品이 섞여 있을 때에는 무조건 다 車輛에다 한꺼번에 실어서 金浦로 갖다 묻으면 人力이 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再活用品이라고 하는 것을 한 5,000餘 톤 끌어내

서 이것을 處理하고 選別하고 運搬하고 販賣하려니까 人力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崔丁植 委員; 분리수거를 해서 處理를 하려니까.....

○淸掃事業本部長 金東勳; 그렇기 때문에 再活用品을 收去하는 사람의 利益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돈은. 區廳에서 收去하는 것은 區廳의 販賣管理基金으로 들어가고, 代行業體가 가지고 간 것은 代行業體의 收益으로 들어가고, 一般住民들이 스스로 販賣한 것은 住民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體制로 運營이 되는 것입니다.

○崔丁植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다음 李基烈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烈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李基烈 委員입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質疑와 執行部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느낀 것은 쓰레기 종류가 참 많기도 하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첫째, 제가 質疑드리고 싶은 것은 연탄보일러나 기름보일러 방을 가스보일러 방으로 바꿀 적에 뜯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쓰레기가 1.2톤 정도, 100L의 규격봉투에 담았을 적에 10 봉투가 나올지, 20 봉투가 나올지 모르지만 車를 대서 버려야 할 정도로 나올 수도 있고, 또 庭園을 整理했을 적에 흙이나 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代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소에 싱크대나 냉장고 그런 물건 말고, 깨진 항아리라든가, 큰 화분이라든가. 더러는 콘크리트 더미가 약간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규격봉투에다가 항아리를 조각 조각 깨서 담아야 한다는 問題가 나오는

데, 그럴 때에 연탄재처럼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方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建築現場에도 그렇습니다. 과다 보면 中間集荷場 車가 오는 것이 아니고, 土木工事하는 車가 오게 마련인데, 그 차가 흙을 싣고, 또는 廢資材를 싣고 中間集荷場으로 갑니다. 그럴 경우에 集荷場側에서 부르는 것이 價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價格制度에 대한 對策은 없으신지, 아까 방을 뜯었을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 制度가 있어서 그 車가 金浦埋立地로 바로 갈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中間集荷場으로 갔을 적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잘 整理가 안 되니까 나중에 또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그 問題에 대해서는 淸掃局長님이 答辯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淸掃局長 金承珪; 李基烈 委員님 質疑事項에 대해서 淸掃局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집 修理할 때 많은 쓰레기가 發生이 되면 一週日에 연속해서 1톤 이상 發生이 되면 그것은 多量排出이 됩니다. 多量排出이 돼서 그것은 반드시 建築物 廢材類 收集運搬業者에게만 處理토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1m³當 1萬원에서 1萬 2,000원 이렇게 手數料를 주고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소량이 나올 경우 1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역시 규격봉투에다가 處理할 수밖에 없습니다. 庭園樹 剪枝問題도 마찬가지고, 깨진 항아리, 화분 그런 것도, 그래서 1차적으로 튼튼한 마대에다가 담아서 다시 규격봉투, 100L 짜리 규격봉투가 되겠지요. 그렇게 담아서 利用해 주십사 하고 弘報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集荷場 부근에서 價格받는 것이 제 멋대로라서 被害를 보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정해진 料金보다도 業者들이 지금 51個 收集運搬許可가 나가다 보니까 덤핑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過當競爭을 해서 덤핑이 돼서 이 사람들이 收支가 안 맞아서 다른 데에 不法流出을 할까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指導團束을 強化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더 많은 料金を 要求하는 事例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李基烈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까.

엇그저께 어느 市議員님으로부터 이런 質疑를 받았습니다. 생선이 車 1臺分이 썩어서 金浦埋立地로 갖다가 버려야 되겠는데 區廳에서는 處理를 안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民間業者한테 의뢰해서 處理해 보라 이랬는데, 處理가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선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淸掃局長 金承珪; 家庭에서 나온 경우입니까?

○李基烈 委員; 아니지요. 車 1臺니까 市場에서.....

○淸掃局長 金承珪; 그것은 그 市場이 전체 묶어서 多量排出處로 되게 되어 있으면 지금 代行業者하고 契約에 의해서 매일 매일 收去를 해 주고, 원 手數料를 納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基烈 委員; 네.

○淸掃局長 金承珪;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고 多量排出處로 전체 안 묶여 있고, 어느 特定한 생선가게에서 자기네들이 매일 排出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소량인 것 같으면 규격봉투에다가 역시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李基烈 委員; 매일은 아니고, 한 번 그런 問題가 생기면

.....

○清掃局長 金承珪; 한 번 딱 하더라도 규격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李基烈 委員; 한 차분을 규격봉투에 담는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잖아요?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지금 1일에 300kg 이상의 쓰레기가 排出되는 곳은 多量排出處라고 해서 그곳은 從量制 施行對象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廳은 從量制 施行對象이 아니고, 그러면 多量排出處는 法에 어떻게 規定되어 있느냐 하면 "排出者의 책임 아래 收集運搬處理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排出者 책임하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排出者가, 서울시廳이 직접 자기가 處理 못 하면 그것을 處理하는 代行業體, 政府로부터 許可받은 業體, 쓰레기 處理業者한테 委託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이 1톤이나 나왔다 하면 그것이 자기는 전혀 契約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물론 소량이 나오니까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 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사고가 나서 자기 상점에 있는 생선이 다 썩었다. 그러면 그것을 區廳에서 치워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경우에는 쓰레기 專門處理業者가 있으니까 그 處理業者를 불러서 契約해서 이것을 치워드오 하면 그 사람이 치워드립니다.

○李基烈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清掃局長에게 하나 더 確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m³當 1萬원 내지 1萬 2,000원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多量으로 이렇게 나왔을 적에. 마당을 정리했을 적에도 1톤이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방을 뜯었을 적에도 1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1m³當 1萬원이나 1萬 2,000원을 주면 中間集荷場에서 가져간

다 그런 말씀 아십니까?

○清掃局長 金承珪; 그것이 工事作業 等 連續되는 行爲에 대해서 一週日에 1톤 이상 排出되는 많은 量일 경우에는 그렇고, 거기에 미달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대에다가 담아서 규격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李基烈 委員; 거기에 대해서 研究를 더 해서 住民이 便利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해 주시기 바랍니다.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단독주택에 사는데 저는 일반 생활쓰레기 排出者예요. 그러니까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 놓는데, 집 修理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物량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내가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든, 아니면 專門處理業者를 불러서 契約해서 치워달라고 하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李基烈 委員;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 경우에 가격 부르는 것이 높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그 가격은 지금 현 51個나 되는 業體가 나가 있으니, 市民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가 弘報를 해야 되겠네요. 51個 業體가 나가 있으니 한 곳을 불렀더니 너무 많이 달라고 하더라, 그러면 당신 안 쓰겠소, 다른 사람 불러서 더 싸게 해 준다고 하는 데하고 契約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李敏國; 局長님, 제가 李基烈 委員님 質疑 핵심을 보충말씀 올리면 建築物 廢材類가 發生했을 경우 1톤이 됐든, 10톤이 됐든 發生했을 경우 中間集荷場이라고 하는 데서 糶포한다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建築物 廢材類를 신고서 金浦埋立地를 가서 부리는 噸當 돈과, 中間集荷場 許可해 준 47個所에서 받는 돈은 15톤 트럭에 보통

28만원 받습니다. 15톤 트럭에 싣고 나가서 中間集荷場에 重機業者가 싣고 나가서 놓으면 28萬원 받는 中間集荷場은 양심이 똑바로 배졌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상 32萬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李基烈 委員님이 제일 고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執行部에서 許可를 해준 47個 中間集荷場이 하나의 獨占營業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받는 手數料를 法으로 定해서 一律적으로 더 받으면 어떤 罰則을 가한다든가, 免許를 取消한다든가 하는 어떤 강력한 措置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核心內容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척 느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住民의 負擔으로 돌아가지요.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建物을 헐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建築物廢材類가 500車分이 나온다. 그러면 中間集荷場에서 와서 바로 그 값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重機를 가진 사람들이 헐게 되어 있고, 重機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실어다가 金浦埋立地 들어갈 資格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業者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中間集荷場을 부득이 거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500車를 3X5하면 1億 5,000이라는 돈이 김갑돌이 집이라고 그러면 김갑돌이한테 늘린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이 바로 一般市民의 무게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李基烈 委員님께서 執行部에서 中間集荷場을 許可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法的根據를 남겨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清掃局長 金承珪;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다음 李昌根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根 委員;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分離收去가 施行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잘 된 것은 官과 우리 市民이 잘 협조해서 잘 돼 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問題가 되는 것은 지금 施行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리수거해서 나온 再活用品에 대한 것이 큰 問題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이것이 계속 쌓여서 비인기 再活用品에 대해서 상당한 問題가 앞으로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서울 市民이 모아놓은 과지를 活用하는 것보다 外國에서 과지를 收入해서 쓰는 것이 經營者의 立場에서는 그것이 돈이 덜 들어가고 질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國內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 놓은 再活用品이 점점 처지고, 또 다른 쓰레기로 변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官廳은 물론이지만 公共團體, 또는 個人들도 再活用을 왜 써야 되는 이러한 弘報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再活用品을 해야 環境的 次元에서 즉, 우리 國民, 나 자신이 利益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것이 영구성이 있고, 國民 각자가 하는데 신이 나지, 이것 했더니 영똥하게 婦女會나 어느 公共團體에서 중간에서 돈만 먹고, 나는 기껏 분리해서 줬더니 아무 것도 아니더라, 利益이 없더라 물질적으로. 이랬을 때에는 二次的인 問題가 또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再活用하고 쓰레기를 燒却한다든가, 埋立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두가 環境的 次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理由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關係가 없습니다.

첫째는 環境的 次元, 우리 人間에게 미치는 次元 때문이니까

너무 그 하는 方法에 따라서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根本적인 解決策으로 해서 再活用に 대한 것을 해야지, 현재 모든 것이 高級化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이것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골목길에 奉仕하시는 분한테 관급봉투를 드린다는데 그것을 一般 家庭用이나 事業場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表示를 해서 주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根 委員; 그러면各自 양심이 있으니까 個人的으로 쓰지는 않겠다 이렇게 確信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醫療用 廢棄物 中 一回用 주사나 漢方에서 쓰는 一回用 침에 대해서 이것을 再活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消毒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다시 一回用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敏國; 答辯해 주시지요.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지금 좋은 指摘의 말씀을 하셨는데 再活用品을 열심히 市民들이 收集해다 내 놓으면 이것이 잘 제대로 再生이 되어 가지고 資源으로 活用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非人氣品目的 경우에는 問題가 있다, 再活用品의 종류는 그 國家의 技術水準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5種의 再活用品을 정해 놓은 것은 國內에서 그것을 再生할 수 있는 技術이 있다 해 가지고 정해 놓은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經濟性이 없는 것이 있어요. 좋은 經濟性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經濟性이 있는데 지

금 플라스틱이라든가 經濟性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再生해서 物件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費用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消費가 안 된다 하는 얘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問題를 改善하기 위해서 저희가 市 政府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國家에다가 이러한 再生産業에 대해서 稅制支援이라든가, 金融支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리고, 國民들이 再生用品의 消費를 促進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 分擔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弘報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冊子도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아무리 우리가 弘報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物件의 質이 상당히 좋아야만 市民들이 쓸 것이다, 그래서 工場의 育成支援策은 政府가 맡아야 될 部分이고, 우리는 市民들이 再活用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弘報次元에서 우리 地方政府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消費促進 弘報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官公署, 公共機關에서는 종이같은 것은 전부 再生用紙를 쓰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公共用 봉투는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家庭에서 쓰는 봉투와 색깔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고, 醫療用 廢棄物 中에서 一回用 침이라든가 一回用 주사, 이런 것은 特定廢棄物로서 우리 清掃事業本部가 이것을 擔當하지 않고 市の 경우 保社環境局이 이 分野를 擔當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은 廢棄物 處理業者가 따로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全量 收去해다가 金浦로 가져가지 않고 特定廢棄物 處理場에 갖다가 燒却하거나 埋立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根 委員; 주사침이나 一回用 침.....

○淸掃事業本部長 金東勳; 埋立하는 것이지요.

○李昌根 委員; 埋立한다고요?

○淸掃事業本部長 金東勳; 네, 타지 않는 것은 埋立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金浦埋立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지금까지 여러 委員님들의 質疑와 執行部의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淸掃事業本部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時間이 12時 20分 되었습시다만 請願 問題가 하나 있는데 계속해서 끝을 마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계속하는 것에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2. 燒却場豫算을쓰레기綜合處理技術開發費로轉換要求請願(李汪烈 議員 紹介)

(12時 20分)

○委員長 李敏國; 다음 議事日程 第2項 燒却場 豫算을 쓰레기 綜合處理 技術開發費로 轉換 要求 請願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同 請願의 趣旨說明은 紹介議員인 李汪烈 議員께서 事前에 參席할 수 없다는 事前通報가 있었으므로 趣旨說明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님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贊穆; 專門委員 李贊穆입니다.

.....
(報告)

燒却場豫算을쓰레기綜合處理技術開發費로轉換要求請願 검토보고

(뒤에 실음)

.....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同 請願에 대하여 執行部の 意見を 듣도록 하겠습니다.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우선 請願에 나와 있는 內容을 具體적으로 論議하기 전에 우리 市の 쓰레기 處理 基本方向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事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선 市民들이 排出하는 쓰레기를 減量化를 시키는 것이 1次 目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從量制의 施行도 쓰레기 發生量의 減量化에 상당한 寄與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發生된 쓰레기를 최대한도로 再活用하는데 지금 再活用 專門家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全 世界的으로 發生된 쓰레기의 40%까지가 再活用の 限界點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先進外國의 경우에 40%가 바로 再活用 目標입니다. 그 다음에 남는 60%의 쓰레기는 물론 이것은 國家的으로 봐서 全量 埋立하는 國家도 있고, 스위스와 같이 100% 燒却하는 國家도 있습니다.

그러나 美國 같은 나라는 燒却率이 비교적 낮는데 한 17% 정도 됩니다만, 그 나라는 國土가 매우 넓기 때문에 燒却率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되지만 國土가 좁은 나라일수록 燒却率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埋立場의 確保困難으로 인해서 燒却率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採擇해야 할 基本方向이 아닌가 생각되고, 燒却한다면 ' 쓰레기의 量이 80 %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만 가지고 燒却한 재를 埋立하는 것으로 해서 減量化, 再活用, 燒却, 埋立 이것을 균형 있게 推進하는 政策을 현재 進行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의 基本方向을 말씀드리고요.

江東燒却場의 경우에도 그의 일환으로 그것을 建設을 하는데 당초에 지금 여기 請願書內容을 보면 1日 處理能力 1,900톤의 施設容量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推進하고 있는 것은 1日 處理容量 1,400톤입니다. 1,400톤의 容量은 昨年度에 이것이 策定된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從量制 施行 이후에 쓰레기 性狀의 변화 또는 發生量의 변화에 따라서 調整이 불가능한 것은 現在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燒却場 建設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400톤이라고 하는 容量은 어떻게 策定이 된 것이냐면 현재의 發生量을 가지고 策定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 燒却場, 資源回收施設의 壽命을 20年 내지 25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中間年度인 10年 내지 12年次의 發生量을 推定해

서 1,400톤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從量制 이후에 쓰레기 發生量이 約 30% 減少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部分에 대해서 檢證해서 다소 容量의 變動은 있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현재 생각이 됩니다만, 基本的으로 이 建設을 포기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容量의 變動도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變動事項은 나오지 않으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이미 昨年에 이 用役을 줄 때 제가 알아보니까 再活用率을 32%로 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量이 減少되는 것도 30%정도 減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豫測值로 보고서 容量을 1,400톤으로 決定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變動될 事項은 發生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실제로 지금 從量制 施行 以後의 變動事項을 考慮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檢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基本的으로 쓰레기 資源回收施設의 建立을 變更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敏國; 本部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清掃事業本部長의 見解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同 請願의 處理를 위한 質疑事項이나 좋은 意見이 있으신 委員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迎春 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迎春 委員; 李迎春 委員입니다.

昨年에 燒却場 施設에 대한 住民들의 엄청난 反撥이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 서울市에서 公聽會를 가진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중에 公聽會 過程에서 소란스러움이 있어서 중단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때 昨年 年末까지 마지막

까지 對話가 어떻게 進行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公聽會에서는 좋은 意見들이 많이 나왔고, 또 公聽會에서 나온 意見 中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反映해야 할 部分. 이것은 反映하는 것을 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住民들은 基本的으로 建立 自體를 反對하는 것이 일반적인 傾向이기 때문에 이 燒却場建設을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部分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住民同意를 받아야 되는 部分이 있습니다.

그런데 公聽會를 통해서 說得을 하고 內容을 說明했지만 결국 住民들의 同意를 얻지 못 해서, 지금 法에 住民同意를 얻거나, 얻지 못할 경우에는 關係 地方議會의 同意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昨年 年末에 江東區議會의 同意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說明을 못 드렸는데 이 容量問題하고 지금 住民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請願內容 中 하나가 上水源 保護區域인데 거기서 나오는 廢水가 上水源을 汚染시킬 것이 아니냐, 또 거기서 나오는 煤煙이 上水源을 汚染시킬 것이 아니냐 하는 두 가지 指摘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廢水는 거기다 放流하지 않고 管을 통해서 蠶室水中泔 밑에다가 放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上水源을 지나서 下流地點에 放流하기 때문에 전혀 廢水로 인한 汚染問題는 논의할 가치가 없고 大氣汚染問題는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總量으로, 수은이라든가, 질소산화물, 또는 다이옥신 이런 것을 總量으로 發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總量으로 發表합니다. 개별적

으로도 發表하지만 總量으로도 發表합니다.

이 施設을 우리가 현재 만들어서 運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性能에 대해서는 外國의 동등한 施設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外國에서 가장 最新의 設備施設을 그대로 갖다가 導入해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外國의 同種施設,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外國의 同種施設에서 나오는 매연은 LNG도시가스를 燃燒시켰을 때 나오는 煤煙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各種 煤煙成分에 포함되어 있는 有害物質에 대한 總量은 물론 저희들이 總量을 發表하겠습니다. ○李迎春 委員; 그러면 江東區議會에서는 이 燒却場 建設을 同意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네, 昨年 年末에 同意했습니다.

○李迎春 委員; 同僚委員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李汪烈 同僚議員께서 燒却場建設 반대에 대해서 妥當性を 가지고 많이 애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基本的으로 생각할 때 우리 大韓民國, 그리고 서울시가 燒却場 施設이 과연 몇 %가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늘 상 주장합니다.

지금 뉴욕, 동경 같은 데는 70%가 다 넘고 있습니다. 뉴욕은 7%입니다만, 파리나 동경 같은 경우, 또 스위스 같은 경우도 100%가 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나라 서울만은 15%내지 20%정도의 燒却場 施設이 어느 정도 매듭 된 이후에 埋立이나 其他 再活用 問題를 보다 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겨우 1%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燒却場施設을 反對한다는 것은 妥當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우리 李汪烈 議員께서 주장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住

民健康問題, 다이옥신, 나트륨 問題, 일산화탄소 問題, 이것은 이미 環境側에서나 서울시 우리 執行部 清掃事業本部에서 科學的 근거를 가지고 몇 번 木洞과 上溪洞燒却場施設 建設 당 시부터 住民討議를 통해서 科學的 根據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埋立을 통해서 浸出水問題와 그리고 生態系破壞問題가 더 심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約 1,400億원이나 되는 돈을 廢棄物綜合센터를 建立하는 데 쓴다든지, 再活用施設 技術開發費에 쓴다든지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단지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執行부와 같이 심각하게 받아 줘야 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부지 選定問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誤謬가 있다 이런 問題에 대해서는 住民과 보다 더 구체적인 討議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 燒却場 規模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다 이런 報告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1,900톤이었다 1,40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施設規模에 대해서는 住民과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주장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燒却場施設을 할 경우 이 影響圈內에 있는 住民들에 대한 對策같은 것, 또는 利益 不利益 問題 등에 대해서는 住民과 討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妥當性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問題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清掃事業本部에서 노력을 해 주시되 燒却場 建設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敏國;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네, 李昌根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根 委員; 우선 請願의 件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內容이 合理的이고 妥當性이 있다 할지라도 그 件名과 內容이 합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이것을 舉論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議事進行上 여기 燒却場豫算을 쓰레기綜合處理技術開發費로 轉換 要求, 상당히 광범위하고 획일적이면서, 완전히 燒却場 豫算을 전무한 상태에서 綜合處理技術開發費로 써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件名 자체가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다룰 성질의 것도 안 됩니다. 件名 자체가 返戻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上程됐다는 것이 우선 의아하고, 그 다음에 局長님 말씀마따나 그 地域의 議會에서 同意를 받았는데 이것이 여기 常任委員會에서 우리가 이것 再論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李敏國; 李基烈 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烈 委員; 여러 委員님들의 말씀 잘 傾聽했습니다. 前半期 常任委員會에서도 상계 資源回收施設 關係로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비슷한 請願을 다룬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은 面積도 적고 人口가 密集되어 있기 때문에 燒却施設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 때 당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請願件을 보면 쓰레기 處理容量이 너무 많다든가, 再活用을 擴大하자든가, 住民의 同意를 받아서 또 住民에게 적극 弘報한다든가 하는 것을 勸誘하면서 燒却場 建設은 서울시의 中·長期 計劃에 의하여 推進하고 있는 施策事業임을 감안해서 同 請願書에서 請願人들이 問題點으로 제기한 燒却場 施設規模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淸掃事業本部에서 충분히 檢討하여 資源을 효율적으로 活用할 수 있는 再活用事業에 종합적으로 研究 檢討하도록 執行部에 勸告하기로

하고 同 請願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을 것을 動議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敏國; 李基烈 委員님으로부터 本會議에 附議하지 말자는 動議가 들어왔습니다. 再請 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李基烈 委員님의 動議는 再請이 있으므로 議題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燒却場 豫算을 쓰레기綜合處理技術開發費로 轉換 要求 請願은 제반여건을 다각적으로 審査한 결과 請願의 內容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同 請願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이상으로 臨時會 第75回 第2次 生活環境委員會 會議를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43分 散會)

○出席委員

李敏國 權赫柱 李迎春 鞠應好

金壽漢 金昌學 李昌根 全潤枸

崔丁植 金亨根 李基烈

○專門委員

李贊穆

○出席公務員

清掃事業本部

本部長 金東勳

清掃局長 金承珪

.....
(부 록)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
.....